

논리로 이해하는 사도 행전 (31)

‘사도행전 강해 31 (유익의 목사)’의 내용을 정리/보충한 것입니다.

18장[2] (18:6~28)

[새번역] 6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반대하고 비방하므로, 바울은 그의 옷에서 먼지를 떨고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멸망을 받으면, 그것은 오로지 여러분의 책임이지 나의 잘못은 아닙니다. 이제 나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겠습니다."

유대인을 향한 복음전도는 그다지 결과가 좋지 못했습니다. 사실 바울로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처음에는 일과 사역을 병행하며 복음을 전하다가, 후에는 말씀사역에만 전념하며 열심을 내었는데도, 유대인들은 오히려 반대하며 비방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는 결국 포기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 이제 책임은 당신들에게 있다. 나는 이방인들을 전도하러 간다.”

7 바울은 거기를 떠나서 ...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는데, 그는 이방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고, 그의 집은 바로 회당 옆에 있었다.

‘이방인에게로 간다’라고 선언하고 간 곳이 어디냐 하면, 회당의 바로 ‘옆 집’인 이방인 유스도의 집이었습니다. 옷의 먼지를 떨면서 회당을 박차고 나갔으니, 멀리 멀리 가는 줄 알았는데 바로 회당 옆집으로 간 것입니다. 이 얼마나 재미있는 상황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매우 재미있고 독특한 상황을 만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이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바로 옆집에 사는 이방인은 주님을 믿게 되면서 반전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본문 말씀의 **첫 번째 반전**입니다.

8 회당장인 그리스보는 그의 온 집안 식구와 함께 주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다. 그리고 고린도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고서,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두 번째 반전**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전도 안 해!’라고 선언했는데, 갑자기 **회당장**인 그리스보가 온 가족들과 함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회당장이라는 직책은 교회로 치면 담임목사나 마찬가지인데, 회당의 최고 리더가 복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은 무척 무안했을 것입니다. 옷의 먼지까지 떨고 나왔는데, 평범한 유대인도 아니고 회당장이 온 식구와 함께 믿다니! 바울은 아마 ‘내가 너무 일찍 판단하고 포기했었구나,’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릴 걸...’라고 고백하며 회개했을 것입니다.

열매는 늘 **오랜 기다림**을 필요로 합니다. 사도 바울이 밤낮으로 일하며 복음을 전했던 그 씨뿌림의 결과가, 이제야 열매로 맺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믿은 회당장 그리스보에게, 바울은 직접 세례를 주게 됩니다.¹

9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유대인들에게 전도하는 것을 너무 일찍 포기했던 바울에게,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며 격려하십니다.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라.” 힘들고 열매가 없어 보여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뜻입니다.

¹ 고전1:14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니다.

10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 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이 말씀은, 후에 12~16절에서 그대로 성취되는데, 바울이 억울하게 재판정에 끌려가게 되지만, 아무런 해를 입지 않고 풀려나게 됩니다. (오히려 엉뚱한 사람이 매를 맞게 되는데, 그 이유는 후에 17절에서 설명하겠습니다.)

11 바울은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일 년 육 개월 동안 머물렀다.

12^(상) 그러나 갈리오가 아가야 주 총독으로 있을 때에,



아가야는 아테네와 고린도를 모두 포함한, 좀 더 넓은 행정 구역을 가리킵니다. 갈리오는 이 지역의 총독으로 짧은 기간 (AD 51-52)만 통치하게 되는데, 열병으로 인해서 사임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으로 있었을 때’라는 이 기록은, 평신도들에게는 별 의미 없이 복잡하지만 한 기록처럼 여겨질 수 있으나, 신학자들에게는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기록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행적에 관한 기록이 신약 여러 곳에 흩어져 있고 체계적으로 써 있는 것이 아니라서, 발생 연도를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기록으로 인해서, 바울의 고린도 사역이 AD 51-52년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앞뒤 사

건을 파악해 가면서 전체적인 바울 사역의 연대표를 추정하게 되었습니다. 2천년 전 사도행전의 저자였던 누가가 18장 12절을 쓰면서, 나중에 신학자들이 얼마나 이 12절 기록에 감사해 할 것인지 알지 못하고 썼을 텐데, 이것 역시 성경을 읽는 재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하) 유대 사람이.. 바울에게 달려들어, 그를 재판정으로 끌고 가서,
13 "이 사람은 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갈리오 총독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어떤 신앙을 가졌느냐’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은 갈리오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갈리오의 관심은 바울이 ‘로마 법을 어겼느냐 아니냐’였습니다. 바로 그 점을 노리고, 유대인들은 바울이 ‘법을 어기고 있다’고 고소한 것입니다.

14 바울이 막 입을 열려고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 사람에게 말하였다...
15...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여러분의 율법에 관련된 것이면, 여러분이 스스로 알아서 처리하시오. 나는 이런 일에 재판관이 되고 싶지 않소."

갈리오는 당시의 유명한 철학자 세네카의 형제인데, 세네카는 유대인들을 아주 혐오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그의 형제가 유대인을 싫어했다고 해서, 갈리오도 그랬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갈리오 역시 유대인들을 싫어했다고 가정해 본다면, 유대인들의 소송에 ‘재판관이 되지 않으려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아마 유대인들을 상대도 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로마 법을 어겼다’고 소송을 걸었지만, 갈리오가 살펴보니 자기들 안에서의 신앙 문제인 것으로 판단 되었습니다. ‘명칭 문제’란 예수

가 ‘그리스도(메시아)냐 아니냐’ 하는 명칭을 가지고 논하는 것인데, 유대인들에게 관심이 없는 갈리오가 그런 ‘그리스도 논쟁’에는 더더욱 관심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난 관심 없다’라고 하며 발을 빼게 됩니다.

16 그래서 총독은 그들을 재판정에서 몰아냈다.

17 그들은 회당장 소스테네스를 붙들어가다 재판정 앞에서 때렸다.

그러나 갈리오는 이 일에 조금도 참견하지 않았다.

재판정에서 무시당하고 쫓겨난 유대인들은² 화가 나자 회당장 소스테네스를 폭행하게 되는데, 갈리오는 그런 불법 폭력 행위를 보고도 방관하게 됩니다. 정말 유대인들을 상대도 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의문점이 두 가지 있는데, (1) 8절에는 회당장 이름이 그리스보였는데, 여기서는 이름이 소스테네스로 바뀌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2) 유대인들은 소송에 실패하자 화가 나서 폭행을 하였는데, 그러면 바울을 폭행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아닌 엉뚱하게 회당장을 폭행했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 (1) [회당장의 이름 문제] 유대인들 중의 소수가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이었습니다.³ 따라서 8절에서 그리스보가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그는 더 이상 회

² 회당장을 때린 ‘그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주장이 다릅니다. 유대인이라는 주장도 있고, 헬라인들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정황으로 볼 때 유대인들일 가능성이 크므로, 유대인으로 전제하고 해석하겠습니다.

³ 적대적 감정의 결과가 본 소송인 것입니다.

당장직을 유지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결국 회당에서 쫓겨났을 것이고, 소스데네로 교체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 (2) [왜 바울이 폭행 당하지 않았나] 새로 뽑힌 회당장 소스데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전 회당장이 예수를 믿고 쫓겨났으니, 당연히 철저히 반(反)기독교적 사람이 회당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정황으로 볼 때, 처음에는 반(反)기독교적이었겠지만, 그 역시 나중에는 복음을 받아들 것으로 보입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면 바울이 소스데네를 ‘형제’라고 칭하게 됩니다.

고전1:1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⁴

고린도서의 소스데네와 사도행전의 소스데네가 동일 인물이라면, 이전의 회당장 그리스보와 마찬가지로, 그 역시 후에 기독교로 개종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런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갈리오는 유대인들을 무시하여 재판관을 하지 않고 돌려보냈다.
-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다. ‘우리가 재판에서 패한 것은 회당장 소스데네가 재판에 별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 회당의 대변자로서 열심히 바울을 공격해야 하는데 왜 그랬을까? 혹시 그도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 이런 생각으로 유대인들은 그 분노를 소스데네에게 폭발시킨 것

⁴ 물론 소스데네가 드문 이름이 아니었으므로, 단순히 동명이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 동명이인 이라면 이 본문에서 소스데네가 바울대신 폭행 당한 이유가 불분명해 집니다. 따라서 두 본문의 소스데네는 같은 사람이며, 그 역시 처음에는 복음을 배척하는 회당장이었다가 후에 복음을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큼니다.

이다.

- 소스데네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충분히 근거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하여 소송에 적극적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 결국 그도 (자신의 전임자가 기독교인이 되었듯이) 후에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고린도서에서 바울의 ‘형제’로 불리게 되는 놀라운 믿음의 인물이 되었다.

이 추정이 사실이라면, 소스데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폭행은, 나중에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큰 전환점이 되었을 것입니다. 즉 고난(폭행)이 축복(구원-사도의 형제라고 불림)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8장 본문의 **세 번째 반전**입니다. 폭행당한다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겠지만, 한번 폭행당한 일이 전환점이 되어 ‘사도의 형제’라고 불리며 성경에 기록되는 인물이 될 수 있다면, 저는 자원하여 기꺼이 폭행이라도 당하고 싶습니다.

앞서 언급된 10절의 예언에서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한 것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 졌습니다. 정황상 당연히 사도 바울이 폭행을 당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는 안전하게 풀려났고 소스데네가 받은 폭행은 축복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무사히 고린도 사역을 마치게 됩니다.

〈2차 선교 여행이 끝남〉

18 바울은.. 신도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시리아로 떠났다...

19 그 일행은 에베소에 이르렀다..

22 바울은 가이사랴에 내려서,.. 교회에 문안한 뒤에,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이후에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 -> 가이사랴 ->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 -> 안디옥에 이르렀는데, 2차 선교여행의 출발지였던 안디옥으로 돌아오면서, 기나긴 2차 선교여행을 마치게 됩니다.⁵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

[개역] 24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한편 에베소에서는 의미 있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알렉산드리아⁶ 출신의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참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구약)에 능통했을 뿐 아니라 언변까지 좋았으니, 그야말로 최고의 선생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과 비교가 되는데, 바울 역시 성경에 능통하고 글을 매우 잘 쓰는 실력자였지만, 그는 언변이 좋지 못했습니다.

고후10:10 (새번역)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차지만, 직접 대할 때에는, 그는 약하고, 말주변도 별것이 아니다"

바울이 얼마나 말주변이 없었는지, 그의 재미없는 긴 설교를 듣던 사람이 결

⁵ 23절부터는 3차 선교여행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⁶ 당시의 알렉산드리아는 북아프리카 지역 최대의 도시이며, 문화적-경제적으로 최고의 번영을 누리던 도시였습니다.

국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졸다가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사망하기도 했습니다.⁷ 그런데 아볼로는 실력뿐만 아니라 언변까지 좋았으니,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25 그는 이미 주님의 '도'를 배워서 알고 있었고, 예수에 관한 일을 열심히 말하고 정확하게(accurately) 가르쳤다. 그렇지만 그는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하였다.

아볼로는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상태였습니다 (주님의 '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가르쳤으나, 세례(침례)에 관해서는 요한의 세례 밖에는 알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의 초기 사역에 대한 정보까지 만 들고 가르친 것 같은데, 후기 사역부터는 알고 있지 못한 듯합니다. 그가 예수님 사역의 어느 부분까지 알았는지 확실치 않습니다.⁸ 어쨌든 그는 자신이 아는 범위 내에서 복음을 '정확하게'⁹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개역] 26 ..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more accurately-NJKV) 풀어 이르더라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던 아볼로를 브리스

⁷ 행 20장9절, 물론 그는 나중에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⁸ 25절의 (세번역) '열심히'를 다르게 번역하면 'fervor in the Spirit' 즉 '성령으로 뜨거워서'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오순절의 성령 충만까지 알았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지만, 확실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사실을 그가 '이론적'으로는 알지 못해도, 성령님께서 그에게 강권적으로 충만하게 임하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⁹ 개역 성경은 '자세히' 가르쳤다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후의 문맥을 고려할 때, '정확히' 가르쳤다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영어 성경들도 '정확히(accurately-NIV, NKJV)'라고 번역했습니다.

길라와 아굴라가 ‘데려가서’ 가르치게 된 일인데, 아볼로는 탁월한 ‘성경학자’인 반면에 이들 부부는 텐트를 치며 생활하는 평신도¹⁰였기 때문에 더욱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사도행전이 이들 부부를 묘사하면서 ‘여자’인 브리스길라를 먼저 언급했다는 것은, 아볼로를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여자가 주도했다는 암시를 줍니다. 여자가 남자를 가르친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었던 시대인데, 탁월한 실력의 성경학자였던 아볼로가 엄청난 겸손을 발휘하여 브리스길라의 가르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네 번째 반전**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헌신과 희생을 바탕으로 일어나는데, 자신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배웠던 아볼로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입니다. 주님에 대하여 배우는 일이라면, 누구에게라도 배울 자세가 된 사람이 바로 아볼로였습니다.

브리스길라 부부가 아볼로에게 가르친 것은 하나님의 도에 대한 ‘더 정확한’¹¹ 내용이었습니니다. 아볼로도 이미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후기 사역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려 준 것입니다.

27 아볼로는 아가야..에 이르러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신도가 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브리스길라 부부에 의해서 복음의 ‘더 자세한’ 내용을 배우게 된 아볼로는, 아

¹⁰ ‘평신도’가 정확한 표현은 아니나 편의상 사용합니다.

¹¹ NIV는 more adequately 라고 번역을 하였지만, accurately(25절) more accurately(26절)로 번역한 NKJV 이 가장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야 지방으로 건너가 가르치게 됩니다. 아볼로의 사역에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이미 신도가 된 사람들¹²⁾입니다. 교회 사역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자면 (1)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게 만드는 일과 (2) 이미 믿은 사람들을 더 잘 믿게 만드는 일로 나눌 수가 있을 텐데, 아볼로는 자신이 가진 깊은 학문적 지식으로, 후자 즉 이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깊은 신앙의 단계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본 문서는 헤세드교회 홈페이지 <http://hsdch.org> 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¹²⁾ those who by grace had believed